청년 니트, 실태와 정책대안

2016. 9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검토배경 01

청년 니트 실태 분석 02

국내 정책 현황 및 문제점 03

정책 대안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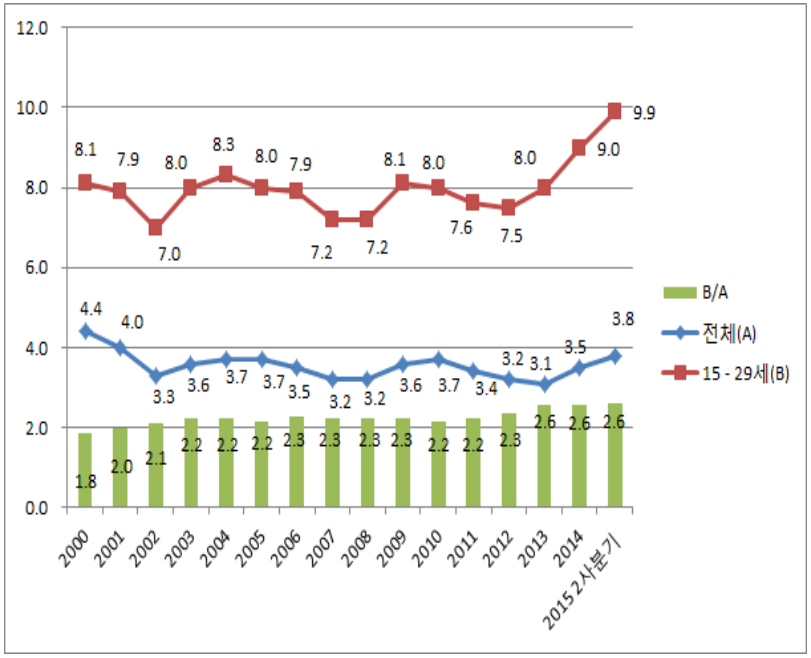
KRIVET

I.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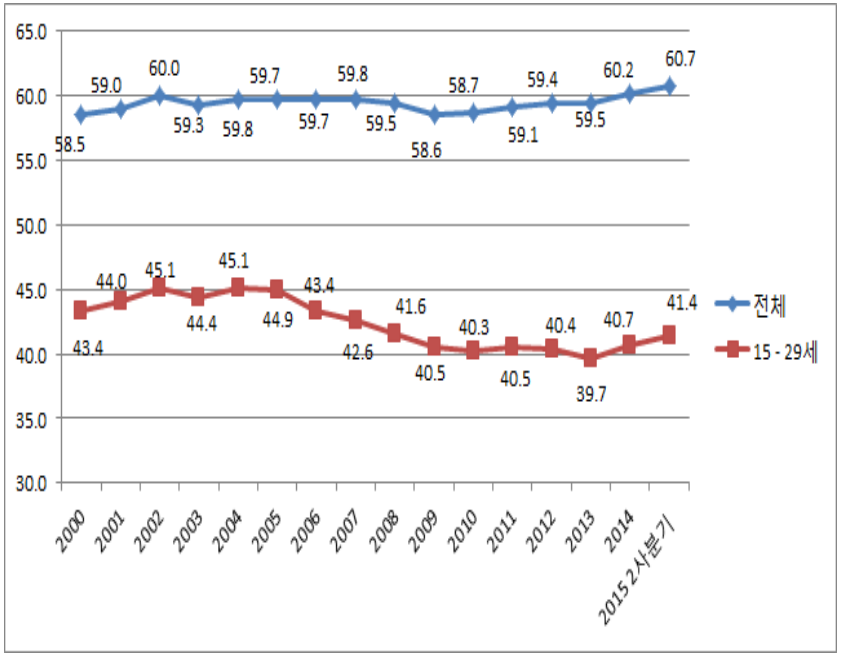
□ 청년층 고용부진 지속

- 청년실업률은 '15. 2/4 9.9%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지속
- 청년고용률은 '04년 이후 하락, 40% 초반에서 정체

연령계층별 실업률(%, 배)



연령계층별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 검토 배경

□ 청년니트 문제 대두

- OECD 보고서(2014): 한국의 니트족 비중은 회원국 평균(15%)보다 3.5%p 높은 18.5%로 회원국 중 8번째

※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의미

- 니트는 일반 실업자보다 취업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니트 문제에 대한 전면적 접근 필요
-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정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니트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 동안 니트는 관심과 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음.
- 이에 따른 니트 상태 장기 지속 시 인적자본 퇴화가 심화되어 노동시장 복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청년 고용 문제 악화 전망

➔ 청년니트 대상 종합 정책 방안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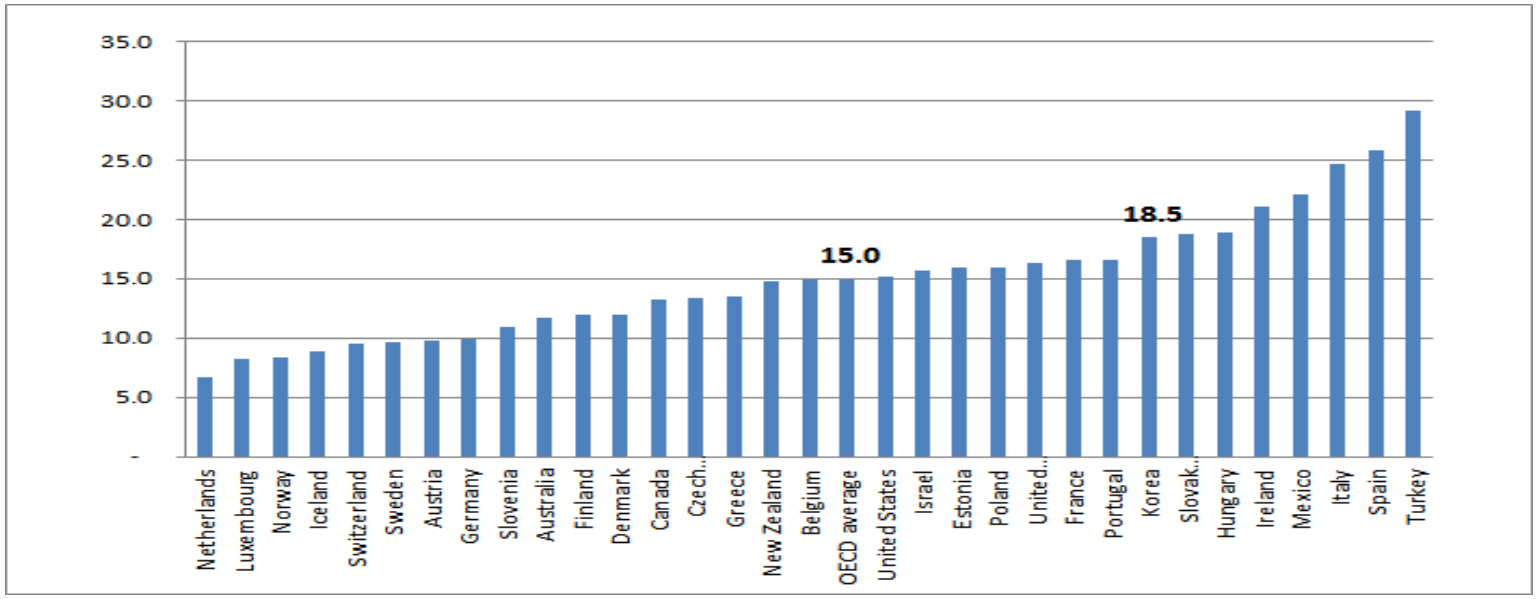
※ OECD는 OECD Youth Action Plan(2014)에서 3개 우선 지원 청년 그룹의 하나로 니트를 선정하고, 3개 그룹별로 맞춤형 고용증진 프로그램을 추진 중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국제비교(OECD)

□ 청년니트 비율은 18.5%, OECD평균(15%) 보다 3.5%p 높음

- 폴란드(16.0%), 영국(16.3%), 프랑스(16.6%), 포르투갈(16.6%), 슬로바키아(18.8%), 헝가리(18.9%), 아일랜드(21.1%)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
- 멕시코(22.0%), 이탈리아(24.6%), 스페인(25.8%), 터키(29.2%) 등이 청년니트 비율이 높은 국가

청년층 니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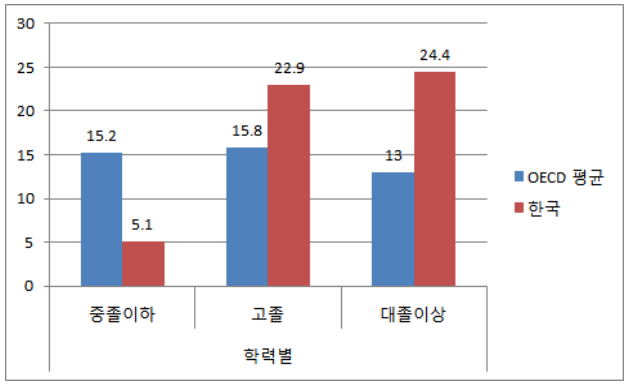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국제비교(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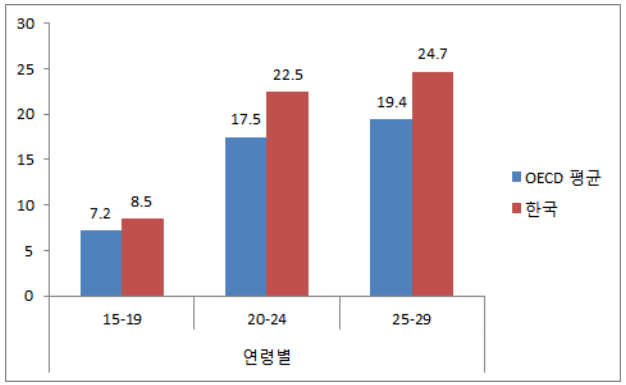
□ 20대, 대졸 이상 고학력, 비경활 니트 비율이 높음

- 대졸이상 청년층의 니트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터키(24.5%)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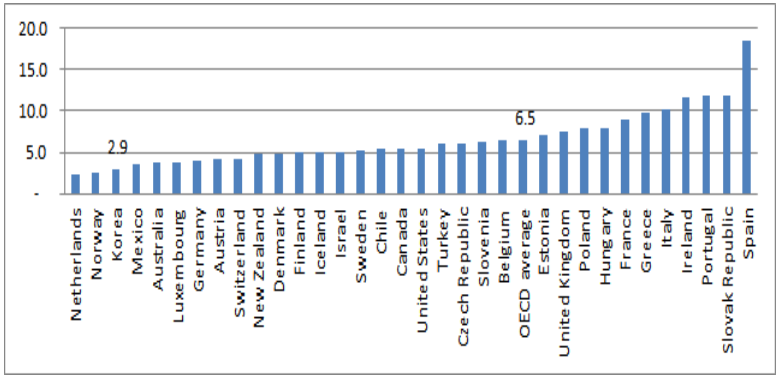
학력별 니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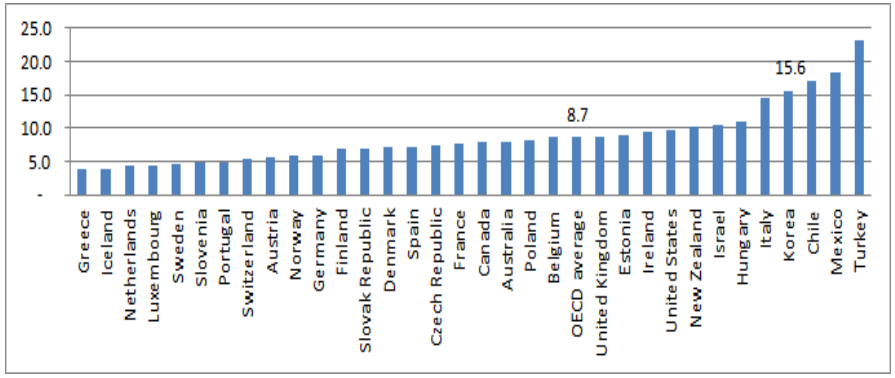
연령별 니트 비율(%)



실업자 니트 비율(%)



비경활 니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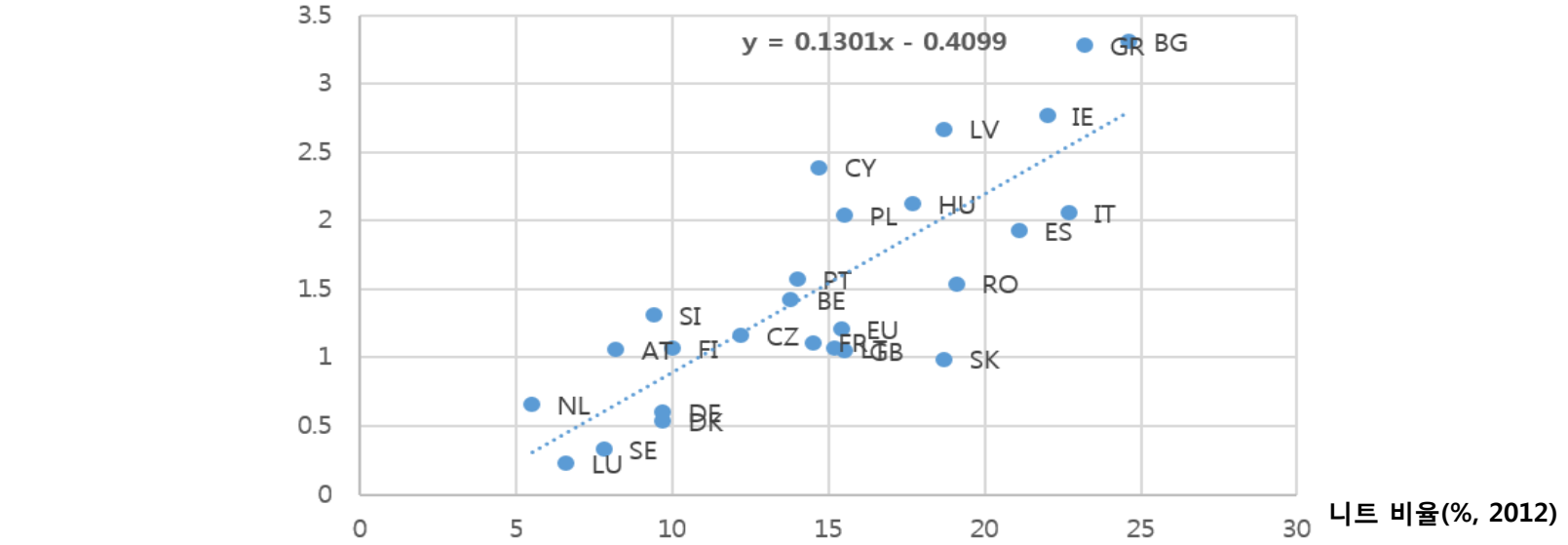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국제비교(OECD)

□ 니트의 경제적 비용(2011년)은 GDP의 1.21%(EU 26개국 평균)

- 니트 1인당 경제적 비용은 10,651 유로 수준
- EU 국가 간 정부 재정지원 정도나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 간 정의 상관관계 존재
- 우리나라에도 이 관계 시, 2014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은 GDP의 1.91%로 추정

니트 비율과 니트의 경제적 비용간의 관계



자료: EU(2012)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규모와 추이

□ 비정규교육기관 참여자 제외해도 여전히 높은 니트 비율

- OECD 니트 정의는 사설학원 등 비형식교육참여가 광범위한 우리나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 정의를 다양화해 재추정
- OECD 니트 정의에서 입시, 취업학원 등 진학·취업 위한 비정규교육기관 통학 제외해도(정의2) OECD평균과 유사한 15% 수준
- 주 정책대상인 가장 협소한 정의(정의4, 그냥 쉰 경우)의 니트비율은 6.4% 수준(OECD 기준 니트비율의 43% 수준) ➔ 최근 증가 양상

정의별 니트 비율(%)

·(정의1) 재학 중이거나 취업자가 아닌 사람(OECD 기준)
·(정의2) '정의1'에서 ② 입시 학원 통학, ③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제외
·(정의3) '정의2'에서 ④ 발령 대기, ⑤ 취업준비, ⑥ 진학준비, ⑦ 군입대 대기 제외
·(정의4) '정의3'에서 ⑧ 결혼 준비, ⑨ 가사, ⑩ 육아 제외. 즉, 그냥 '쉬었음'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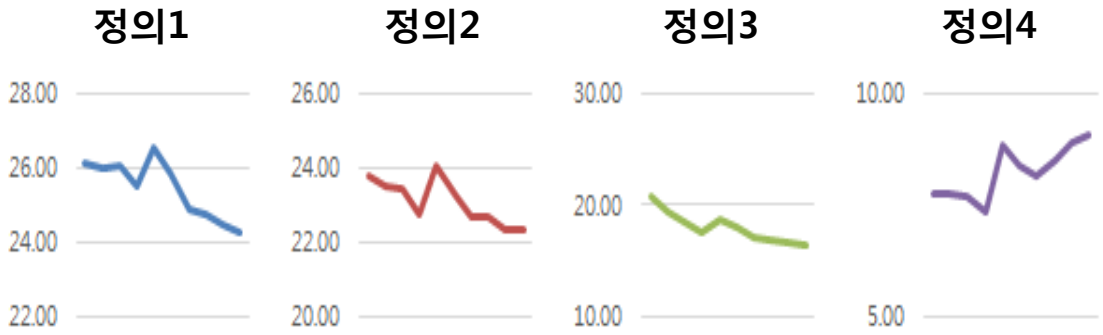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업자 포함	정의1	19.86	19.17	18.54	18.57	19.05	19.25	18.8	18.47	18.05	17.83
	정의2	16.53	16.06	15.44	15.39	15.98	15.7	15.44	15.23	15.12	14.79
	정의3	12.78	11.79	10.97	10.79	11.4	10.6	10.36	10.21	10.02	9.73
	정의4	6.89	6.42	5.84	5.87	6.6	6.11	6.16	6.36	6.53	6.44
실업자 제외	정의1	16.43	15.88	15.58	15.75	15.95	16.28	16	15.62	15.09	14.38
	정의2	13.12	12.79	12.51	12.59	12.92	12.77	12.69	12.44	12.2	11.43
	정의3	9.5	8.68	8.24	8.16	8.52	7.9	7.91	7.67	7.42	6.78
	정의4	3.66	3.34	3.16	3.27	3.77	3.46	3.76	3.86	3.95	3.55
15-29세 인구		992	984	986	982	978	971	959	952	955	9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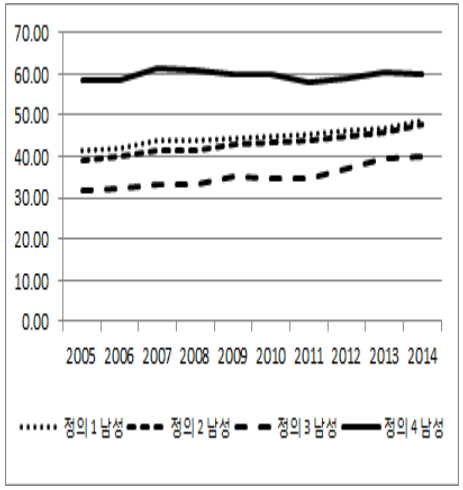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규모와 추이

□ 25~29세 니트 비율(정의4) 증가, 남성 증가, 대졸자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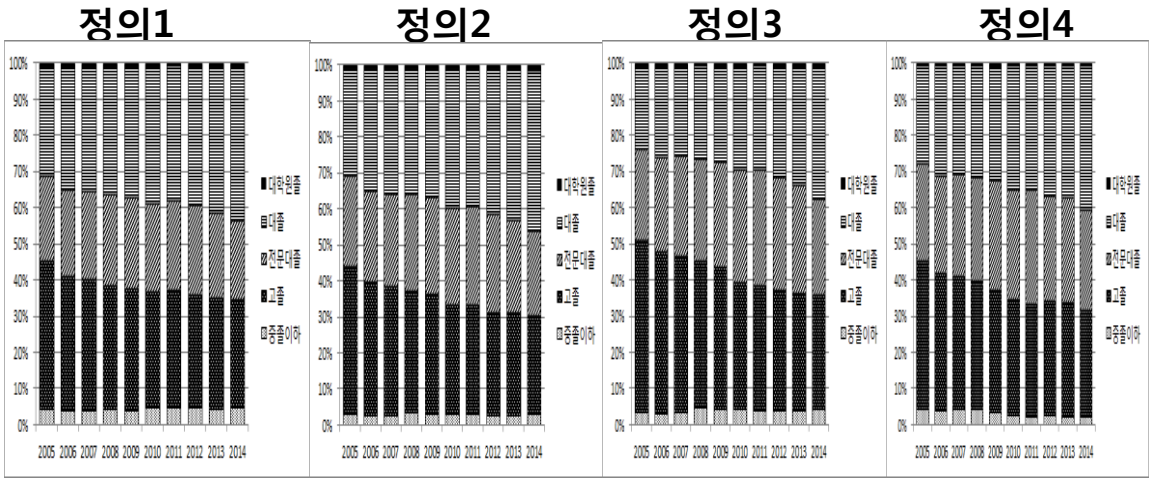
25-29세 연령 집단 니트 비율(실업자 포함)



성별 비중(실업자 포함)



학력별 비중(실업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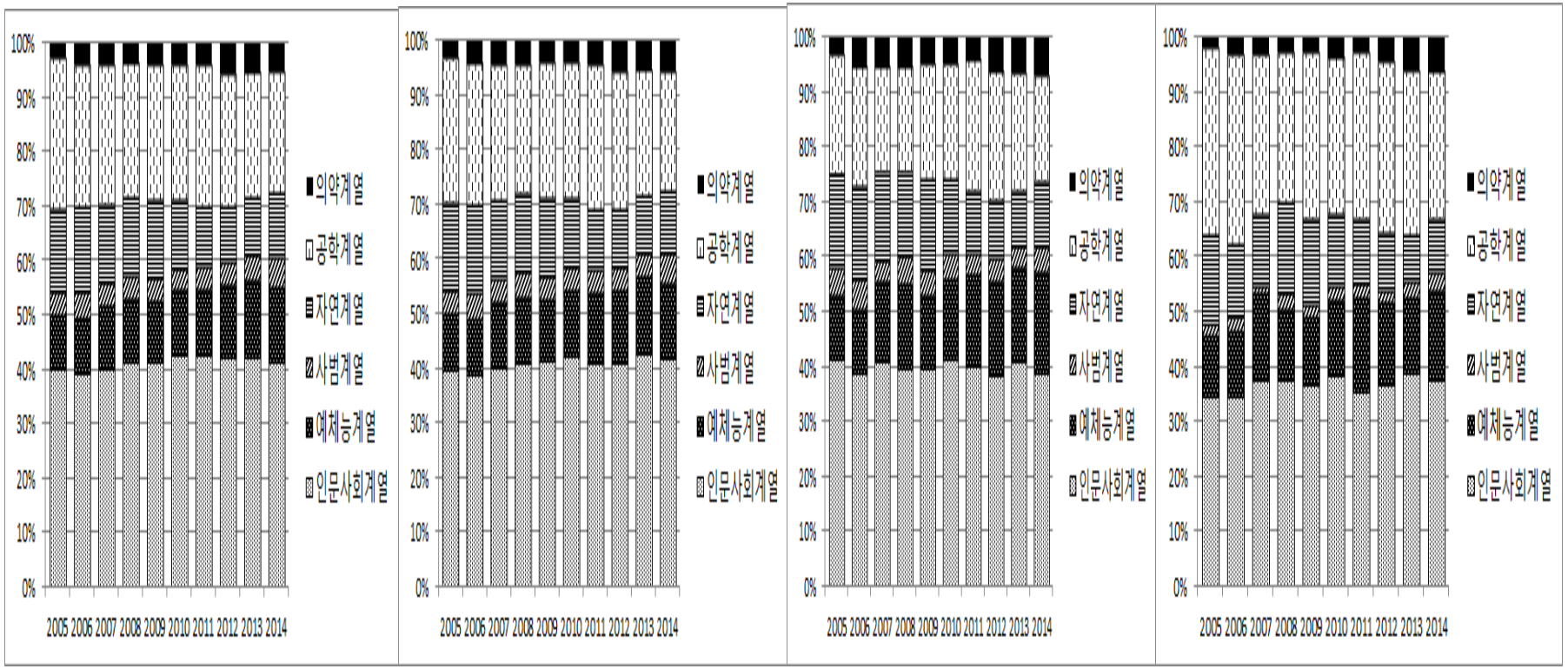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규모와 추이

□ 인문사회계열 40% 내외, 예체능계열 비중 증가

- 공학, 자연계열 비중 감소

정의1(실업자포함) 정의2 정의3 정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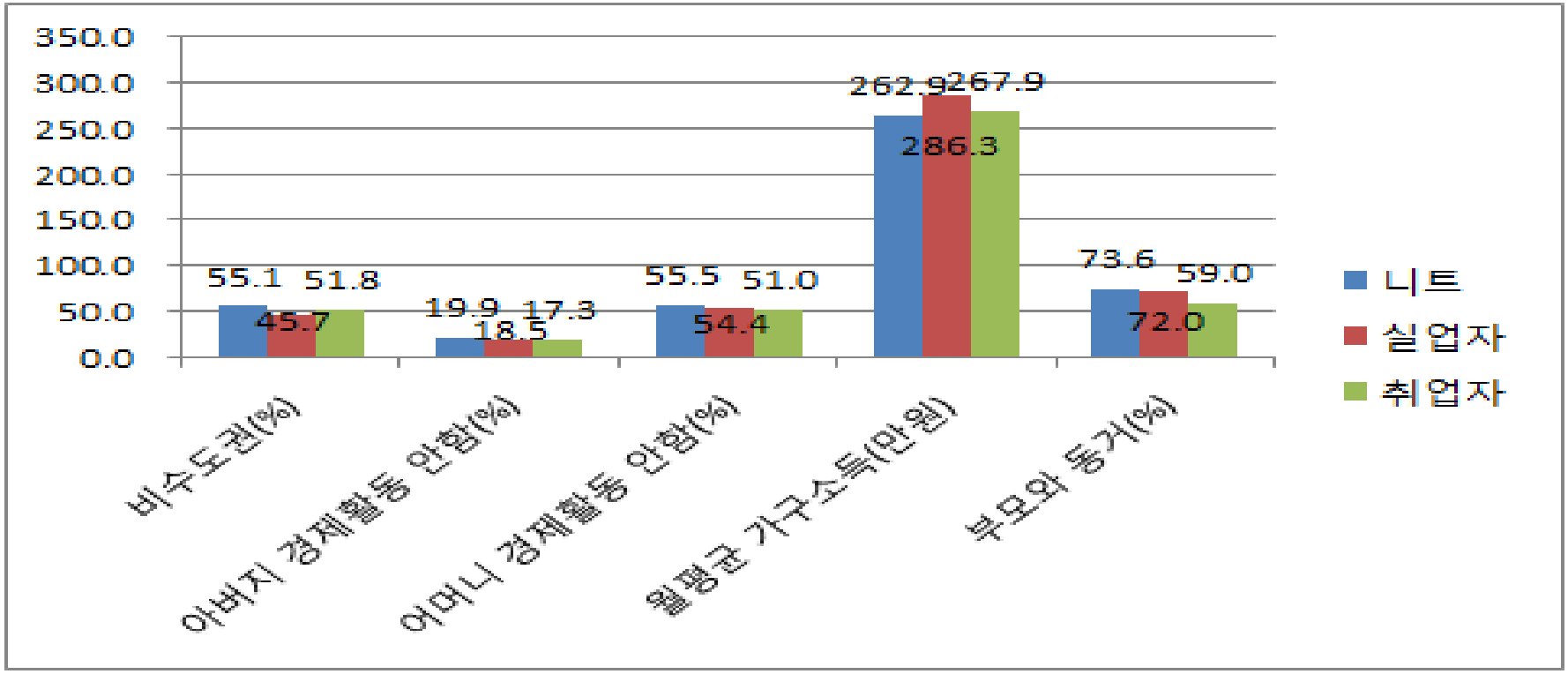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세부 특징

□ 비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다소 높고, 부모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더 높음

니트의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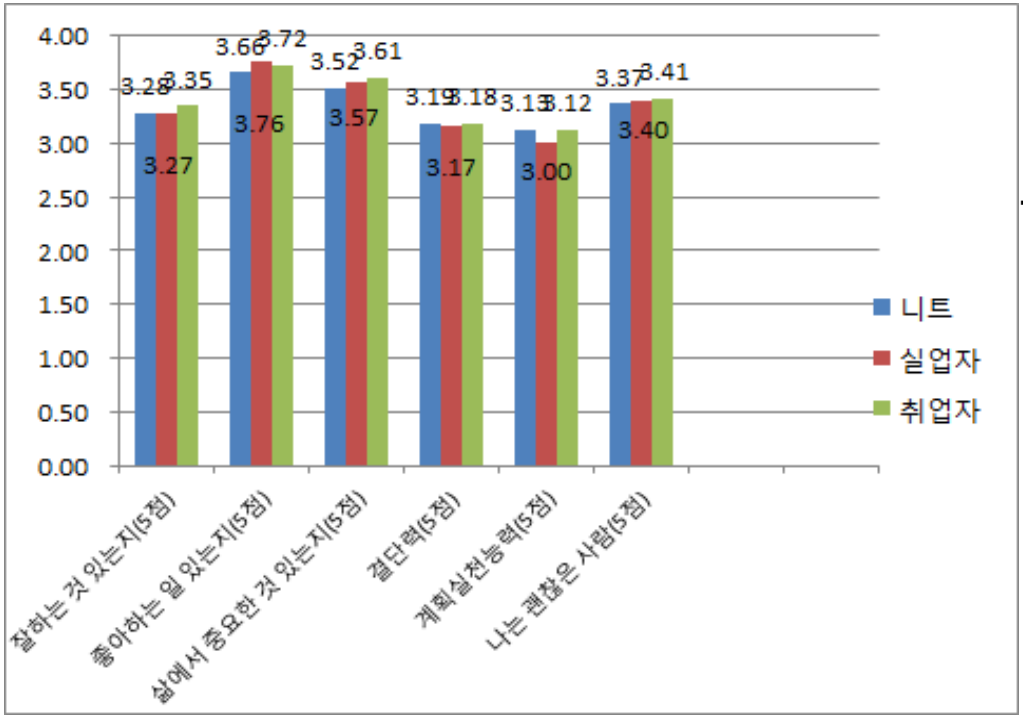


자료: KRIVET,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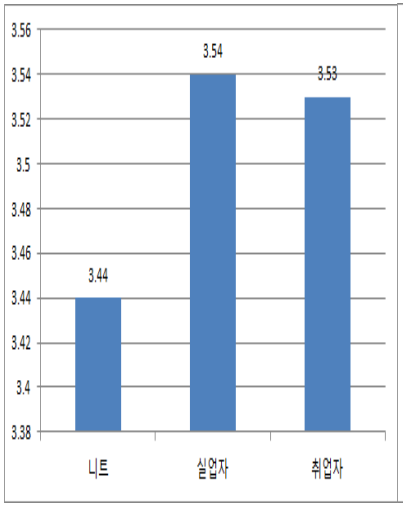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세부 특징

□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 자존감이 낮고 건강상태 인식도 부정적, 본인 적성 인지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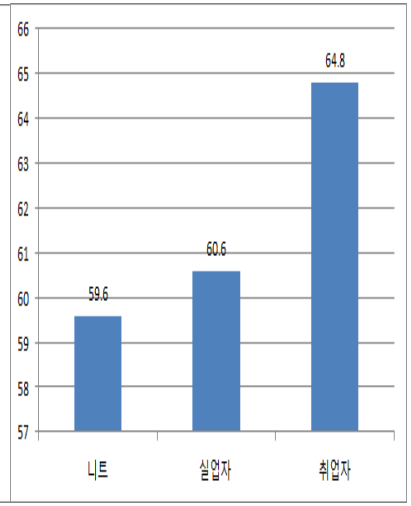
고교 때 자아관



고교 때 건강상태 인식(5점)



고교때 적성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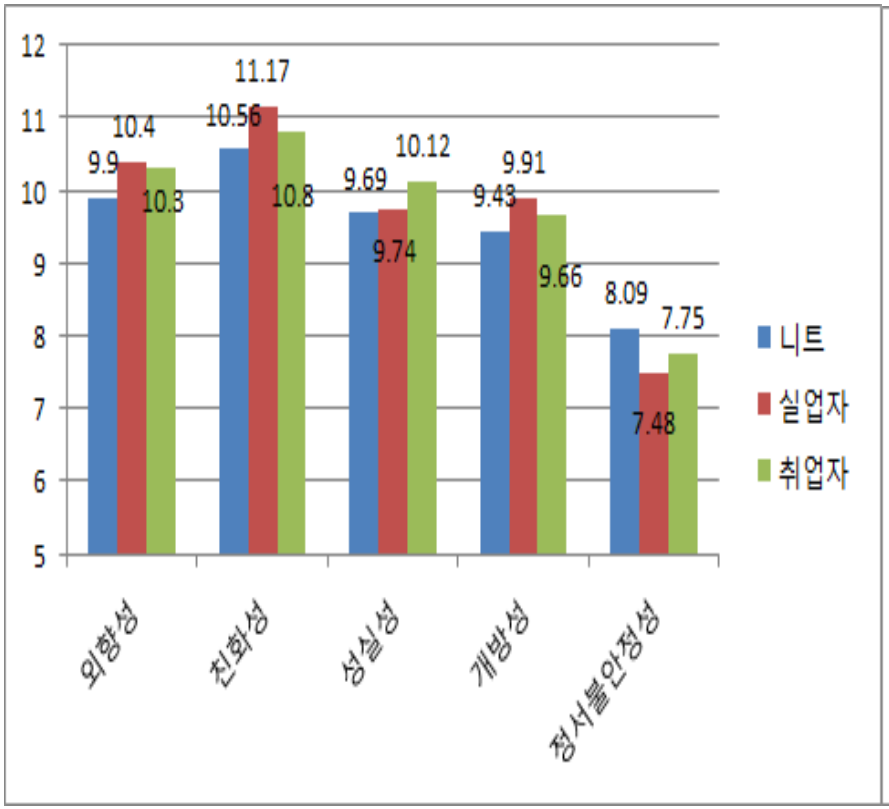


자료: KRIVET,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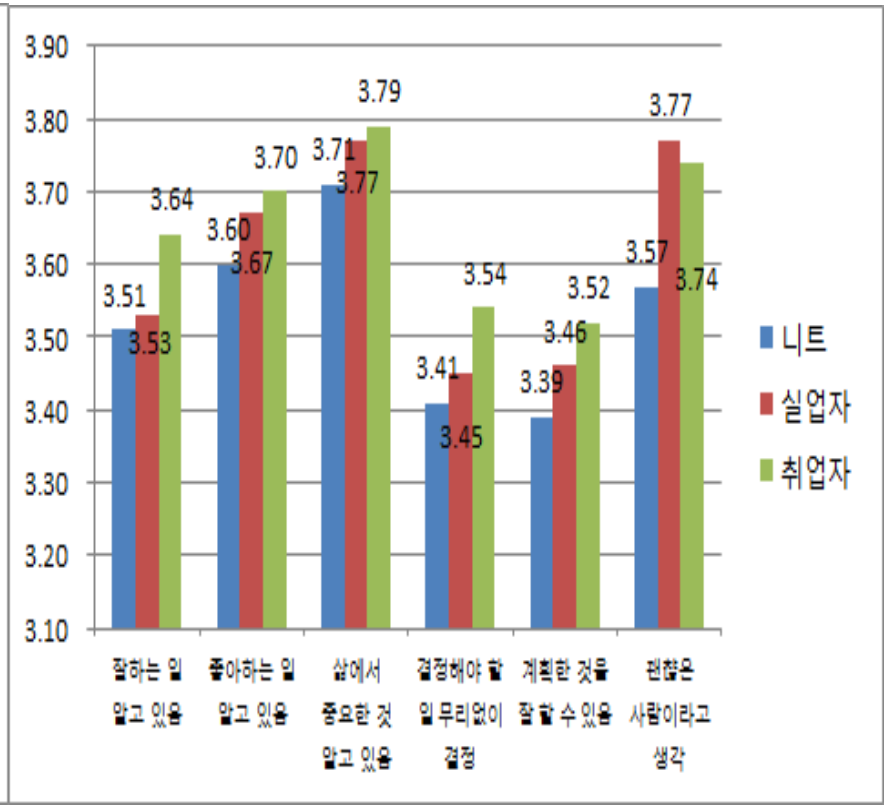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세부 특징

□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서불안정성은 높았으며, 자존감도 낮았음

성격(Big5)



자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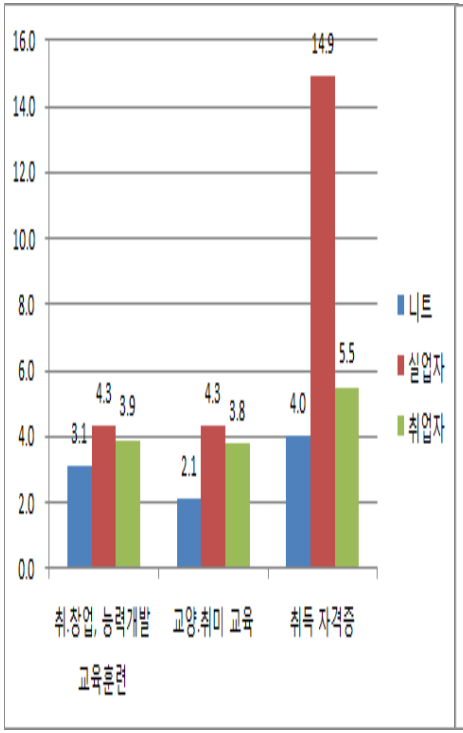


자료: KRIVET,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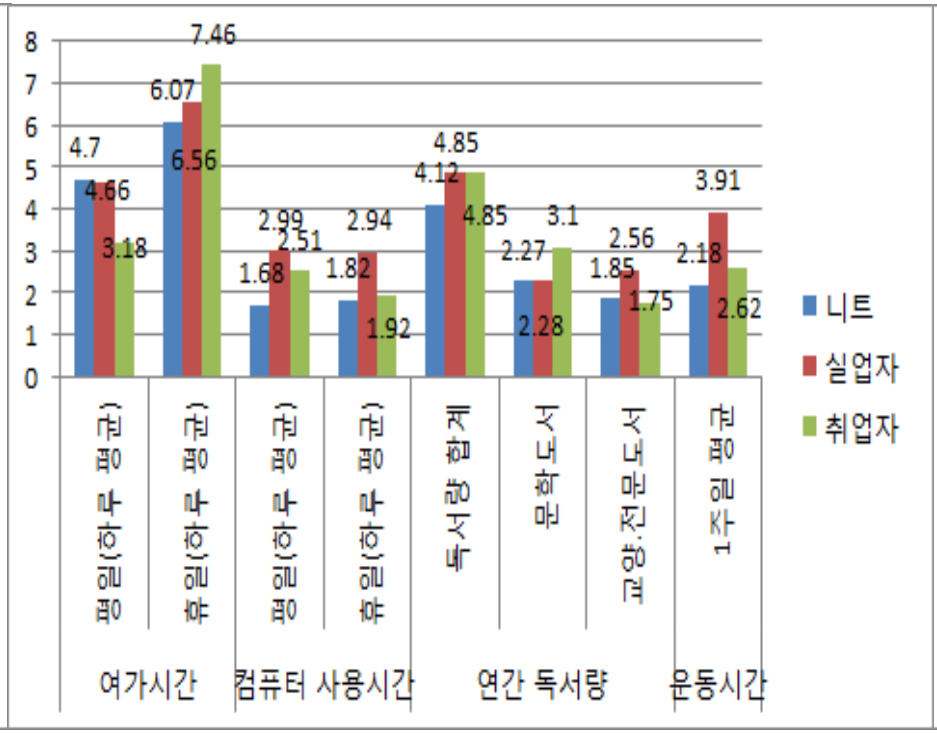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세부 특징

□ 교육훈련 참여 경험 및 자격증 취득 비율이 낮고, 컴퓨터 사용, 독서, 운동 등 자기개발 활동 시간이 적은 편,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 활동에의 참여도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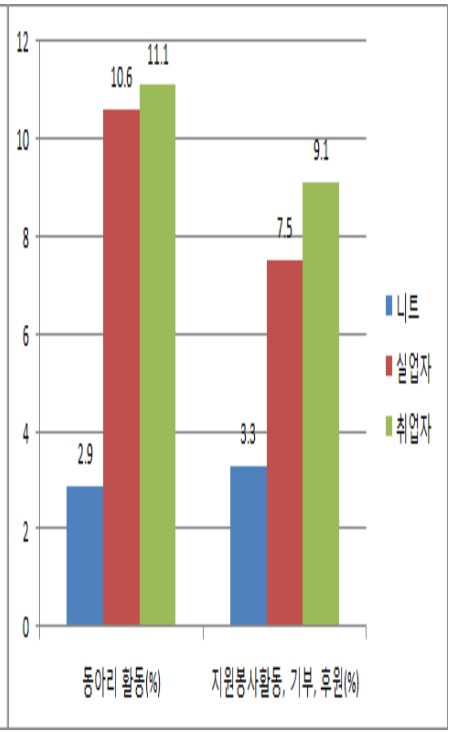
교육훈련 참여 및 자격증 취득(%)



자기개발활동



사회활동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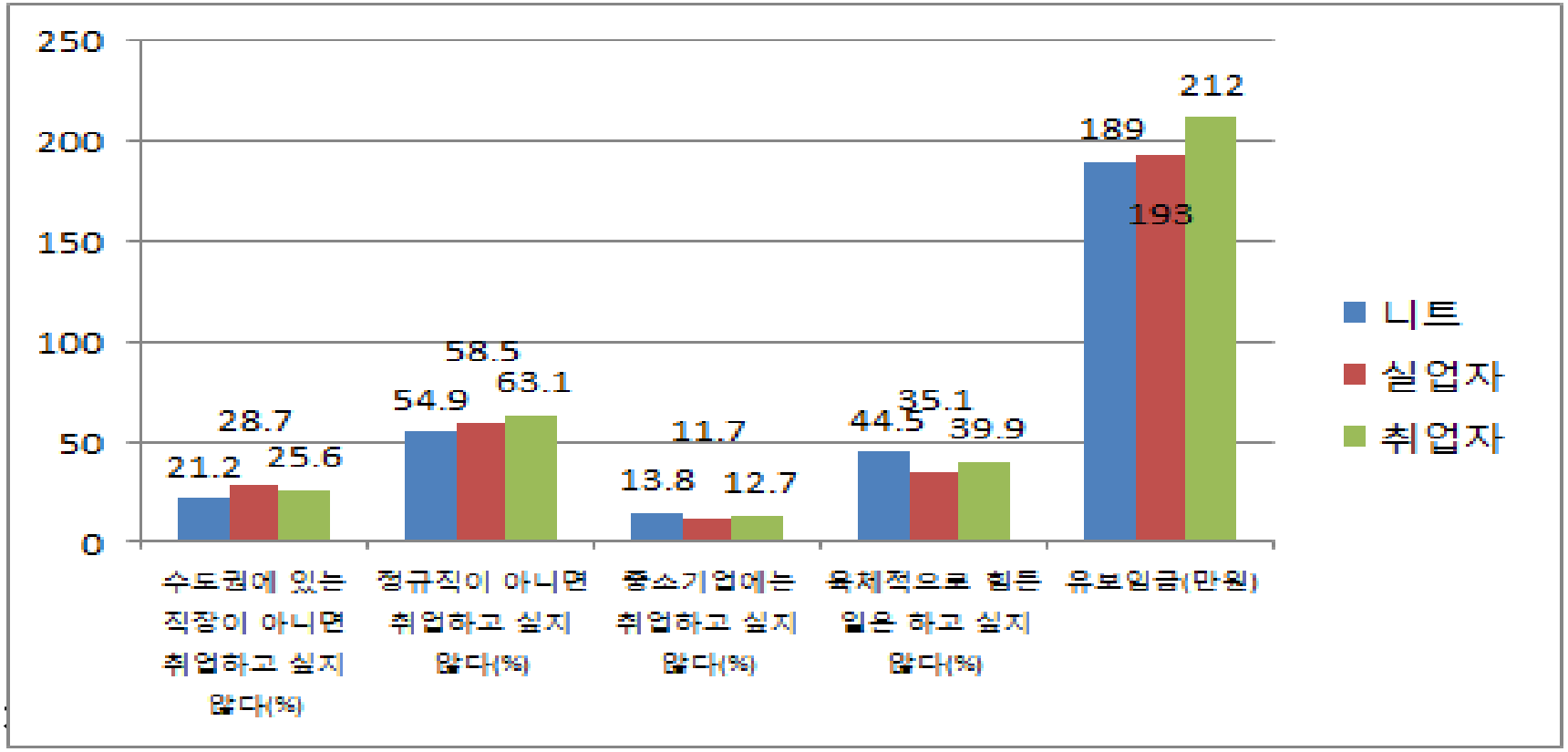


자료: KRIVET,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세부 특징

□ 취업에 대한 눈높이(임금수준, 지역, 정규직 등)가 실업자나 취업자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육체노동 기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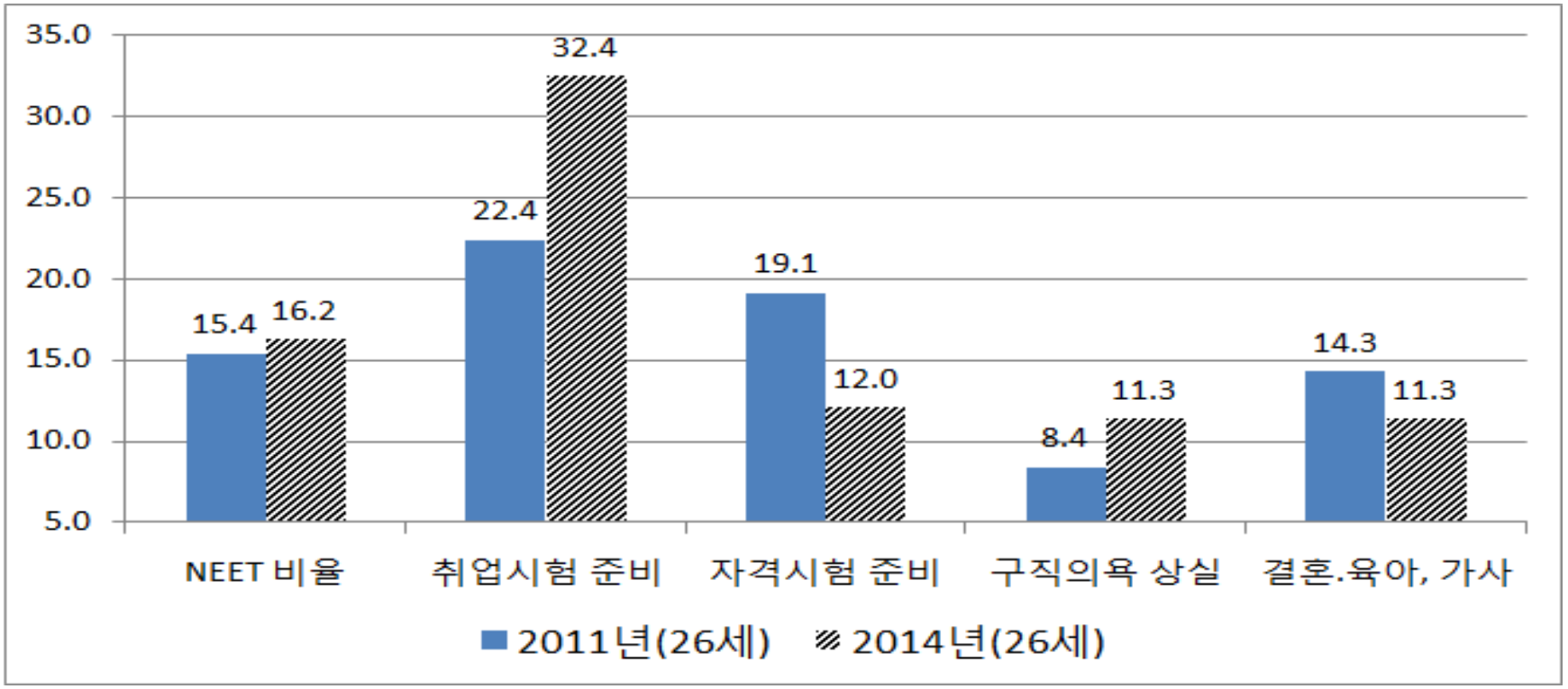
취업눈높이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세부 특징

□ 니트 비중 증가 & 내부 구성도 부정적 변화(구직의욕 상실 니트 비중 증가 등)

2011년 만26세와 2014년 만26세 니트 현황 비교



자료: KRIVET,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세부 특징

□ 장기 니트 11%, 반복형 니트 44%, 일시적 니트 45%

- 장기 니트(5년 계속 니트), 반복형 니트(5년 중 2회 이상 니트), 일시적 니트(1회 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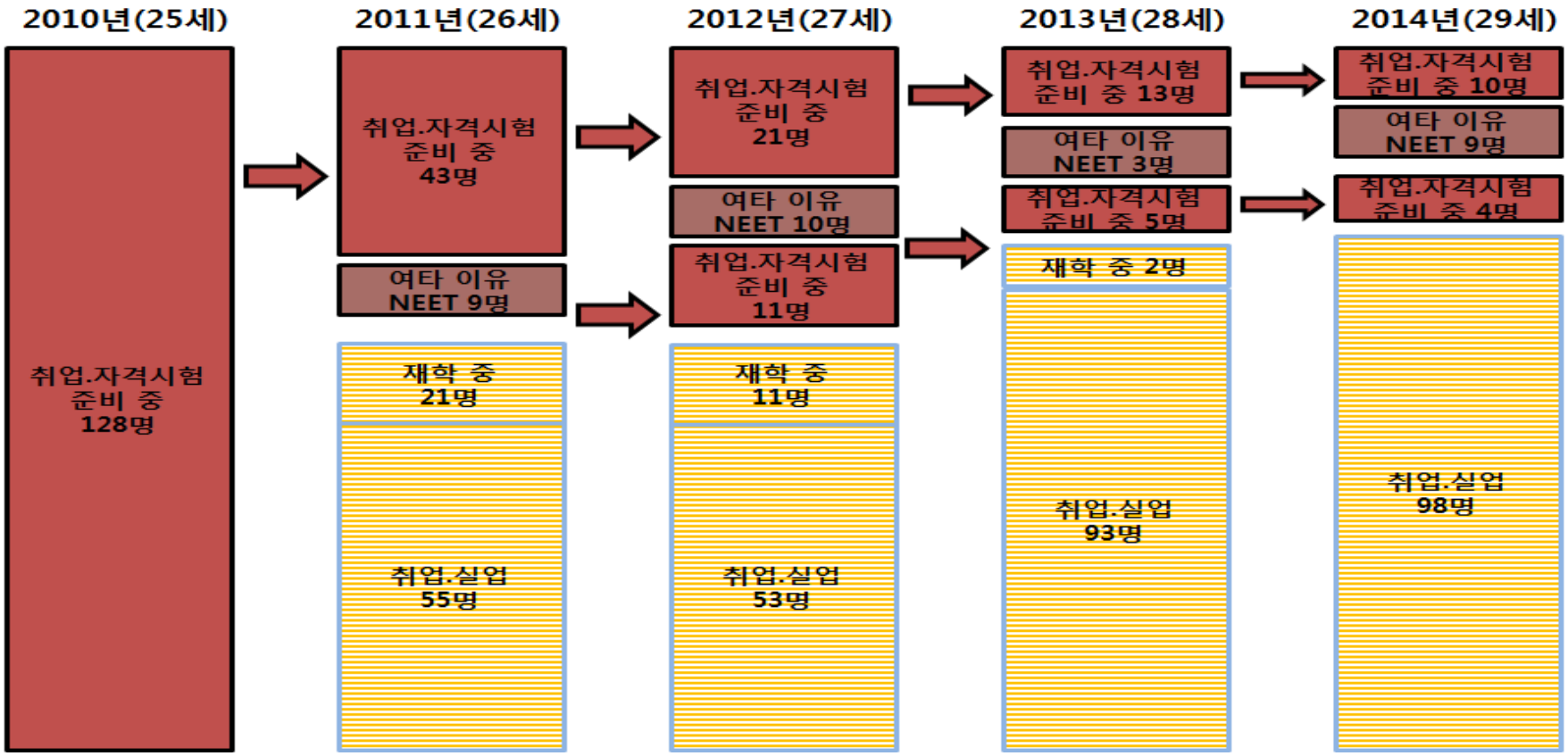
만25세 니트의 5년간 경제활동상태 변화(명(%))

연도 (연령)	2010 (25세) 7차		2011 (26세) 8차		2012 (27세) 9차		2013 (28세) 10차		2014 (29세) 11차	
	NEET	327 (100.0)	계속 NEET	115 (35.2)	계속 NEET	68 (20.8)	계속 NEET	44 (13.5)	계속 NEET	36 (11.0)
									NEET 탈출	8 (2.4)
							NEET 탈출	24 (7.3)	다시 NEET	5 (1.5)
									NEET 탈출	19 (5.8)
					NEET 탈출	47 (14.4)	다시 NEET	13 (4.0)	계속 NEET	8 (2.4)
									NEET 탈출	5 (1.5)
							NEET 탈출	34 (10.4)	다시 NEET	4 (1.2)
									NEET 탈출	30 (9.2)
			NEET 탈출	212 (64.8)	다시 NEET	35 (10.7)	계속 NEET	16 (4.9)	계속 NEET	11 (3.4)
									NEET 탈출	5 (1.5)
							NEET 탈출	19 (5.8)	다시 NEET	5 (1.5)
									NEET 탈출	14 (4.3)
					NEET 탈출	177 (54.1)	다시 NEET	16 (4.9)	계속 NEET	5 (1.5)
									NEET 탈출	11 (3.4)
							NEET 탈출	161 (49.2)	다시 NEET	14 (4.3)
									NEET 탈출	147 (45.0)
NEET 비율	100.0		35.2		31.3		27.3		26.8	

자료: KRIVET,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 청년 니트 실태 분석 – 세부 특징

□ '취업·자격시험 준비' 니트는 시간 경과 따라 상당수가 경제활동인구로 탈출, 장기간 취업·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구직의욕 상실(포기)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 제한적



자료: KRIVET,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Ⅲ. 국내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청년 대상 고용지원 정책

□ 취업인프라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 첫 발표 이후, 청년고용 촉진대책('05년, '08년),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10년, '11년),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14.4월),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15.8월) 등
- (한계) 현재의 청년고용정책은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중심 ➔ 상당수의 니트는 직업기초능력의 부족, 자존감 결여, 잘못된 생활태도, 신체적 장애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 청년고용정책만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불충분
- 청년니트가 명시적 지원 대상인 대책은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 특성상 실제 청년니트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 취업상담 위주여서 심리상담 제공 기능 부족, 의사소통, 대인관계능력 등 기초적인 직업능력 축적을 위한 기능 미흡

Ⅲ. 국내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

□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법무부 등의 대책 ➔ 연계 부족, 24세까지의 청소년 대상 등의 한계

부처	사업명	대상	내용
교육부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험군 청소년	- 학업 중단 뜻 있거나 가능성 인정되는 학생 대상 숙려 기회 부여
	Wee프로젝트		- Wee클래스: 단위학교에서 위기학생이나 부적응 학생 조기, 지원 - Wee센터: 교육지원청에서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 Wee스쿨: 시도교육청에서 기숙형 대안학교 제공
	대안교육기관 지원		-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고용 노동부	취업사관학교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 기숙사 생활 - 6개월 이상 훈련 제공 - 월 30만원 자립수당
여성 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	- 진로 및 취업 지원 - 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진로미결정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 5단계(사전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결과및사후관리)서비스제공
	청소년동반자 (YC: Youth Companion)	위기청소년	- 위기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지원해 주는 전문가 - 지역사회에서 발굴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과 연계
	취약청소년 대상 청소년특별지원사업	- 9~18세 보호자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 보호 못 받는 청소년 - 학업중단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 지원 필요 청소년 - 경제적 취약 가정 청소년	- 최대 3년까지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직접 지원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	- 지역차원에서 청소년복지센터보다 더 촘촘히 설치 - 2015년 중 200곳 개소 예정 - 중앙지원기관/시·도센터/시군구센터 간 유기적인 연계 체제 구축 예정
법무부	자립생활관	- 교정시설 퇴소 후 가정 복귀 어려운 청소년 - 자립 필요 무의탁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대상을 비롯한 저소득층 청소년	- 전국 8개 생활관 운영(시설 당 20명 미만 생활 중)

Ⅳ. 정책 대안 모색

□ 청년 니트 예방 및 추적 강화

- 학교교육을 통한 청년 니트 발생 예방

◦ 니트화 가능성 보여주는 가칭 '니트 위험성 지수' 등의 개발 추진 검토

※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청년들 노동시장 진입 전 조기 개입 필요성 강조

- 니트족 실태파악을 위한 주기적 조사 추진

◦ 니트족의 유형화 및 이들의 니트 상태 탈출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 수립 위해 경활부가조사 형태로 니트 실태 구체적 파악

-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니트족 추적시스템 구축

◦ 일정기간 추적·상담 후에도 니트로 남아있거나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 대해 지역 내 니트 지원기관에서 계속 상담받도록 해당 기관에 연결 의무화

※ 영국: 2008년부터 16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나 훈련기관에서 중도 탈락할 경우 커넥션즈 서비스(13-19세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발달 기회 위해 필요한 정보, 조언, 지도 및 접근에 관련된 통합 서비스 제공)를 받도록 해당 학교, 훈련기관의 고지 의무화

※ 네덜란드: 지역 조정기관(Regional Registration and Coordination Institutes)에서 니트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 니트에 대한 접촉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룩셈부르크: 2003년부터 교육부에서 매달 모든 학교밖 청소년의 상태를 수집, 기록

Ⅳ. 정책 대안 모색

□ 니트의 유형화 및 유형별 대책

- 니트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 및 대책

구분	특징	대책
장애형	신체적 건강 문제로 적극적 구직활동이나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층	복지정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learn-fare와 work-fare를 결합
부족형	일할 의욕의 부족, 직업기초능력의 부족, 정서적 안정감의 부족, 대인관계능력의 부족 등 안정적 취업을 위한 특성이 결핍된 유형	직업기초능력의 강화, 자신감 회복, 정서적, 심리적 안정 지원이 전제될 필요
취업준비형	공무원 시험, 대기업 취업, 전문자격증 취득 준비, 그러나 일부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 니트화 가능	통상적인 취업지원 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적절한 진로 지도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

- 니트 상태 지속 여부에 따른 유형화 및 대책

구분	특징	대책
과도기형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상태로 적절한 정책 지원이 결합되면 곧바로 니트에서 탈출 가능	통상적인 취업지원 정책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추진
반복형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단기간 아르바이트 등)과 니트 상태를 반복하는 집단. 니트 상태를 반복하다가 장기지속형으로 변화 가능	보다 안정된 풀타임 일자리로 연결시켜주는 취업지원 정책이 중요하며, 인적자원개발 필요
장기지속형	정서적 불안정, 직업기초능력의 부족에 따라 니트 상태를 장기적으로 계속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 경제적으로는 주로 가족에 의존	대인관계능력을 포함한 직업기초능력의 강화 지원, 정서적, 심리적 측면의 안정 지원책이 우선시되어야

Ⅳ. 정책 대안 모색

□ 니트의 유형화 및 유형별 대책

- 장애형 니트는 장기지속형이 될 가능성 높고, 부족형 니트는 반복형이나 장기지속형의 모습을 띨 가능성
- 취업준비형은 과도기형 니트일 가능성 높지만, 일부 미취업자는 장기지속형이 될 위험성 존재

존재 가능 니트 유형

	과도기형	반복형	장기지속형
장애형	×	×	○
부족형	×	○	○
취업준비형	○	×	○

Ⅳ. 정책 대안 모색

□ 니트의 유형화 및 유형별 대책

존재 가능 니트 유형과 정책적 대응

니트 유형	정책 방향	정책 내용
취업준비형 & 과도기형 니트	취업지원정책	중소기업 취업 지원 유도
장애형 니트	복지정책 + 인적자원개발정책 + 고용할당제	- 직장내 훈련과 의무고용 결합 프로그램 도입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반복형 니트	인적자원개발정책	일학습병행제 적극 활용
부족형 니트 or 장기지속형 니트	종합적 접근	- '일의 인문학' 학습 기회 부여 - 자신감 회복, 핵심기초능력의 숙달 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기숙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일경험이나 사회생활 경험 기회 제공 - '사회 혁신형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Ⅳ. 정책 대안 모색

□ 니트의 유형화 및 유형별 대책

※ 벨기에 IBO(Individual Vocational On-the-job Training): 참여 기업들은 12개월 이내 직장 내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이 끝나면 최소 훈련기간 만큼의 고용 의무를 갖게 되며, 일정기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받음.

※ 영국의 E2E(Entry to Employment) 프로그램: 자신감 회복, 취업의욕 고취, 핵심기초능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 교육을 마친 이후 직무관련 추가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일본의 '청년자립숙': 부모 곁을 떠나 3개월 정도 합숙 형식으로 생활훈련 및 취업 체험

※ 서울시는 기존의 공공근로를 청년층의 욕구에 맞게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국제교류 , IT 등 '사회 혁신형 일자리'로 재설계함으로써 일의 의미를 높이고 이를 통해 청년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

Ⅳ. 정책 대안 모색

□ 지역기반 니트 지원기관 중심의 네트워킹

- 취업상담 및 지원을 넘어선 보다 종합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니트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기관을 구축할 필요성 존재

  ➔ 가칭 'Y 스테이션'

◦ 청년 대상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 지역기반의 민관 협력 청년 대상 지원기관

◦ 심리상담,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기초직업능력교육(대인관계 등), 자기개발교육, 직업교육 등의 종합적 지원 가능하도록 복지기관, 고용기관, 교육기관 등과 연계체계 구축

◦ 청년 니트에 대한 접근성 제고 위해 니트 지원기관내에 청년들이 수시로 모여 고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청년 전용공간 설치

◦ 적극적 대국민 홍보 통해 니트의 정부지원서비스 접촉을 독려

Ⅳ. 정책 대안 모색

□ 지역기반 니트 지원기관 중심의 네트워킹

※ 일본의 청년서포트스테이션 : 청년 니트 지원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160개의 청년서포트스테이션을 구축

· 후생노동성이 사업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중앙 서포트스테이션을 관할하며, 공모를 통해 1년 단위로 지역 단위 청년서포트스테이션을 선정함

· 취약 청소년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NGO 등 비영리단체의 청년서포트스테이션 운영을 적극 유도함

· 청년서포트스테이션이 중심이 되어 지역내 취업지원기관(Hello Work, JOB카페 등), 교육기관, 복지기관, 지자체, 지역사회(자치회, 반상회 등), 니트 등 청년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NPO 법인 등의 네트워크 구축

※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에서는 정책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훈련기관, 진로지도 서비스 및 청년 서비스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으며, 단발식의 정책보다는 총체적 접근법을 강조

Ⅳ. 정책 대안 모색

□ 활성화(Activation) 정책 시행: (가칭)'한국형 청년보장' 프로그램 도입

- 니트가 교육, 훈련, 고용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도입

◦ 니트의 프로그램 참여 유도 위해 적정 수준의 참여 수당 제공하고, 이를 전제로 영국처럼 'Activity Agreement'를 추진하여 수당 지급에 상응하는 자기개발 의무 부과

· 자기개발 의무에는 적극적 구직활동, 취업알선에 응할 의무 등 직접적 취업을 위한 활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훈련 참여, 일경험이나 사회생활 경험 활동 참여 등도 포함

◦ 지역 기반의 민관협력 니트 지원기관이 사업 주도

Ⅳ. 정책 대안 모색

□ 수요맞춤형 교육훈련 기회의 지속 제공

- 일학습병행시스템 확대

◦ 도제학교를 공업계열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특성화고를 도제학교로 재편

※ 정부는 2017년까지 도제학교를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로 확대할 예정

※ 도제시스템 발달 서구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업 분야의 도제제도도 잘 운영되고 있음

◦ 일반계 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 체제로 전환하고, 직업교육과정 희망 학생들에게는 일학습병행교육 실시

◦ 일반 구직자와 특성이 상이한 청년 니트 대상의 새로운 일학습병행제 구축 필요

- 대학의 선취업후진학 교육 및 계속교육시스템 강화

◦ 대학을 통해 실업자훈련을 위시한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될 필요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전제로, 대학의 계속교육기능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강화

감사합니다.